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군인의 직업특성과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 지 수

군인의 직업특성과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이 재 림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 지 수

박지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한 경혜 (인)
부위원장 Chung Grace H. (인)
위 원 이 재 림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기반으로 군인의 직업특성과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의 관계에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군인의 직업특성으로는 근무시간 특성(근무시간이 길고, 외박이 잦으며, 불규칙하여 예측하기 어려움)과 순환근무제에 따르는 잦은 거주지 이동을 살펴보았으며, 가족생활은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군인의 독특한 직업특성으로 인한 군인가족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이러한 직업특성으로 인해 군인 아내가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아내는 정량화할 수 없는 근무시간이나 반복되는 거주지 이동과 같은 군인 남편의 직업특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비롯되는 부담이나 결혼생활에서의 긴장 등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군인의 직업특성과 가족생활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남편이 직업군인이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 및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 323명이 응답한 온라인 조사 자료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가 유

의한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였으며, 결혼지속년수, 자녀 수, 남편 계급은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의 근무시간과 거주지 이동 특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무시간 특성과 거주지 이동 특성 자체는 아내의 가족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은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통해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남편의 근무시간이 무정량적인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아내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아내의 군인가족 자부심은 낮았으며, 군인가족 자부심이 낮은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낮고, 양육스트레스는 높았다. 이러한 이중매개효과 이외에 부정적 인식의 개별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근무시간 특성은 부정적 인식만을 통해서도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거주지 이동 특성은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통해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거주지 이동이 빈번했거나 현거주지에서 생활한 기간이 짧은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아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낮고, 양육스트레스는 높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군인의 근무시간 및 거주지 이동 특성과 아내의 가족생활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군인의 직업특성과 아내의 가족생활 사이의 관계에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군인 가족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제언 및 군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군인 아내(military wives), 근무시간(work hours), 거주지 이동(residential moving), 직업특성에 대한 인식(perceptions towar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군인 가족 자부심(military family pride),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

학 번 : 2016-2169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
제 1 절 스트레스 과정 모델	7
제 2 절 군인의 직업특성과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	12
1. 군인의 직업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12
2.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의 매개효과 ...	18
3.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	19
제 3 장 연구방법	22
제 1 절 연구참여자 및 연구절차	22
제 2 절 측정도구	25
제 3 절 분석방법	30
제 4 장 연구결과	32
제 1 절 주요변수의 전반적 경향	32
제 2 절 군인의 직업특성, 아내의 부정적 인식, 군인가족 자부심,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	35
제 5 장 논의	41
참고문헌	48
<부록 1> 설문지	60
Abstract	67

표 목 차

<표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4-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32
<표 4-2>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34
<표 4-3>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40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모형	6
<그림 4-1> 측정모형 검증 결과	37
<그림 4-2> 구조모형 검증 결과	3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군인의 직업특성은 군인 개인 뿐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배우자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가족체계 이론에 따르면 가족이란 상호의존적인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로서 기능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이로 인해 한 구성원이 처한 환경이나 경험은 다른 가족구성원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x & Paley, 1997). 군인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족 체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군인의 가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Paley, Lester, & Mogil, 2013).

군인가족은 군인의 직업특성과 관련된 독특한 가족생활을 경험한다. 군인가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근무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특성이 이들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훈련, 비상 등으로 인한 잦은 외박, 근무시간의 무한정성, 주기적인 근무지 이동,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지역(이하 격오지)에서의 근무, 직무수행 시 위험성, 해외파병 등이 군인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특성이라 할 수 있다(양정선, 최윤선, 이정화, 2011; 정현숙, 정선영 2012b; Burrell, Adams, Duran, & Castro, 2006; Drummet, Coleman, & Cable, 2003).

군인가족의 구성원 중에서도 군인의 아내는 훈련, 파병, 장시간 근무와 같은 직업특성으로 인한 남편의 잦은 부재로 가족 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군인 아내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박영숙, 1995; 양정선 외, 2011; 정현숙, 정선영, 2012b; Green, Nurius, & Lester, 2013; Kelly, 1994; Palmer, 2008).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군인 아내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Joseph & Afifi, 2010).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는 모든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요인에 의한 양육부담 이외에 군인의 직업특성으로 인한 양육부담이나 결혼생활에서의 긴장 등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군인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주둔하는 기지가 많기 때문에 해외파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파병 기간과 빈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 전쟁 중 경험한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등이 군인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파병과 가족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Lester, Aralis, Sinclair, Kiff, Lee, Mustillo, & McDermid Wadsworth, 2016; Riggs & Riggs, 2011). 예를 들어, 파병으로 인한 별거생활이 군인 아내의 심리·정서(Faulk, Gloria, Cance, & Steinhardt, 2012), 결혼만족도(Karney & Trail, 2017), 스트레스-대처(Padden, Connors, & Agazio, 2010)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발표되었다.

군인의 직업특성은 파병,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군인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직업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chuman, Bell과 Tran(1994)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군인가족의 경우 파병, 전쟁의 위험 등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 군인가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군인가족의 경우 가족시간 부족, 잦은 훈련으로 인한 외박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한 직업특성(정현숙, 정선영, 2012a), 빈번한 거주지 이동(박영숙, 1995)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군인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군인의 직업특성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은 중대한 생활사건보다 개인에게 미치는 순간적인 영향력은 작을 수도 있지만 훨씬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만성적으로는 더욱 영향력이 큰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Pearlin, 1989).

일상적으로 경험 가능한 군인의 직업특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무시간 특성과 거주지 특성이 있다. 군인은 잦은 연장근무와 비상대기, 작전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길며, 각종 훈련과 당직, 야간근무로 출·퇴근 시간을 예측할 수 없거나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군인은 근무하는 부대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순환근무제로 인해 거주지 이동이 빈번하다. 이러한 근무시간, 거주지 이동과 관련된 직업특성은 군인 남편이 직업군인으로서 일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군인의 근무시간과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인 아내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군인의 직업특성 중 계급, 복무기간, 병과와 같은 요인이 아내의 삶의 만족도, 가족건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박미은, 2013; 이영균, 최복희, 2010). 그러나, 일상적인 직업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정현숙, 정선영, 2012b; 조홍식, 강민철, 2008)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가족 관련 문헌(박영숙, 1995; 양정선 외, 2011; 정현숙, 정선영, 2012a; 정현숙, 정선영, 2012b)에서는 군인의 근무시간 및 거주지 이동과 관련된 직업특성에서 비롯되는 군인가족의 어려움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따라서 가족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근무시간,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인의 특수한 직업환경이 모든 군인 아내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며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군인가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으로 인해 배우자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

해은 반면(정현숙, 정선영, 2012b; 조흥식, 강민철, 2008; Segal, 1986), 군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군인의 독특한 직업특성에도 불구하고 군인 아내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17; 양정선 외, 2011; Karney & Crown, 2007). 따라서 군인의 직업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스트레스 요인 또는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필연적으로 부적응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스트레스 관련 이론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Folkman, & Lazarus, 1988; McCubbin, & Patterson, 1983; 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군인의 직업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과정을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과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누고, 심리적 자원의 매개·조절 역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earlin et al., 1981).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군인의 직업특성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군인 아내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군인가족 자부심을 스트레스 요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원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일과 가족 간의 상호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일이 가족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업특성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 뿐 아니라 직업특성과 관련된 가족구성원의 인식과 같은 주관적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Barnett & Gareis, 2002; Crouter, Matthew, Melissa, & Susan, 2001). 군인의 직업특성과 가족생활 간의 관련성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가

족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에 주목해왔으며(Adams, Durand, Burrell, Teitelbaum, Pehrson, & Hawkins, 2005; Burrell et al., 2006; Pittman, 1994),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주관적 인식은 결혼만족도 및 군인가족 생활만족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rrell et al., 2006). 경기도에서 실시한 군인가족 실태조사(양정선 외, 2011)에 의하면 군인 아내들은 남편이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긍정적인 의미부여가 군인가족의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mann, Remshaw, Allen, Markman, & Stanley, 2014). 따라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은 군인의 직업특성과 관련된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인 아내에 주목하여,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인의 직업특성인 근무시간 및 거주지 이동,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 군인가족 자부심,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은 부부관계 차원과 자녀양육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을 대표하는 속성으로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군인가족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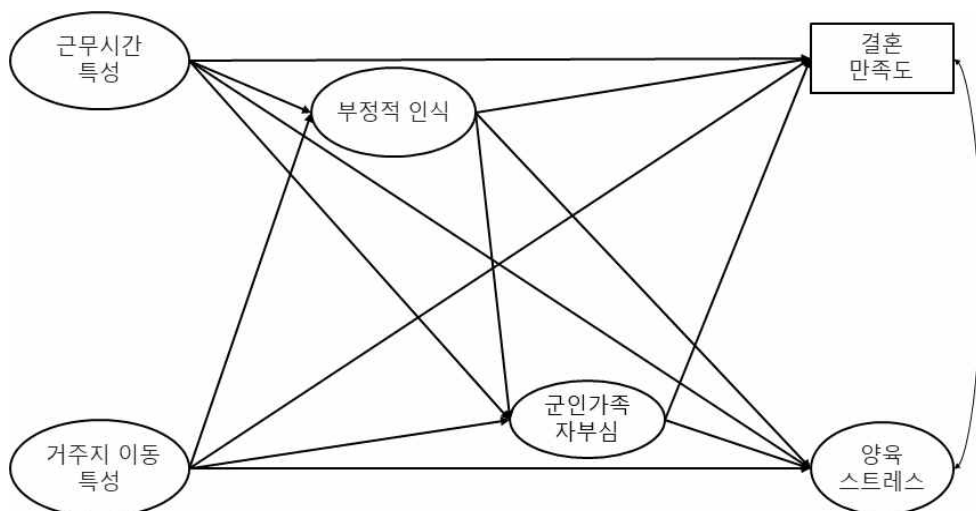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편이 직업군인이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군인의 직업특성(근무시간, 거주지 이동)과 아내의 가족생활(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직접적 관계와,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통한 간접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군인의 근무시간 및 거주지 이동 특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은 군인의 근무시간 및 거주지 이동 특성과 군인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모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인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살펴본 이후, 연구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스트레스 과정 모델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은 Pearlin et al.(1981)이 제안한 이론으로, 스트레스를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개인이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스트레스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강조한다(Pearlin, 1989).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개인을 둘러싼 가족의 객관적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한 확산 과정을 거쳐 가족구성원의 내적, 심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탐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확산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역할까지 살펴봄으로써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까지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크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 source of stress)’,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자원인 ‘매개요인(mediator, mediating resource)’,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스트레스 결과(outcome, manifestation of stress)’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 된다(Pearlin et al., 1981).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제안된 이후 가족을 둘러싼 환경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개인의 스트레스 과정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Schieman, Whitestone, & Gundy, 2006).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 군인가족 자부심,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의 관계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 군인의 직업특성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란 개인의 지각과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군인의 근무시간이나 거주지 이동과 같은 직업특성은 지각과는 관련 없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은 근무시간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초과근무나 당직근무 등으로 인해 일과 후나 휴일에도 부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각종 훈련과 비상대기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인의 근무시간은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선행연구에서는 군인의 근무시간이 ‘무정량적’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표현하였다(조홍식, 2010). 즉, 무정량적인 근무시간이란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할 뿐 아니라 각종 훈련과 비상대기로 인해 출·퇴근 시간 예측이 어렵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무정량적인 근무시간은 군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가족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며(국방부, 2017), 이로 인해 군인 아내는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가족생활에서 지속적인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잦은 거주지 이동이란 군인의 주기적인 근무지 이동에 따른 빈번한 주거 이동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의 결혼 후 이사 횟수는 평균 5.6회로 나타났다(국방부, 2017), 복무기간동안 평균적으로 16.2회 이사를 한다고 한다(조재영, 2005).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거주지 이동은 단발적인 생활 사건으로, 지금까지 맺어온 친구나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와 활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Wells & MacDonald, 1981). 그러나 군인가족에게 거주지 이동은 가족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군인 아내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을 따라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사회관계

망을 형성해야하는데서 오는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의 재구조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사노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의 적응에 신경을 써야하는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종합했을 때, 부정량적인 근무시간과 잦은 거주지 이동은 가족생활에서 군인 아내의 부담을 초래하는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

Pearlin et al.(1981)은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이는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확장된 형태의 스트레스 요인이다(Pearlin et al., 1981).

가족체계적 관점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의 직업환경은 그 개인을 넘어 다른 가족구성원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ley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군인의 직업특성 역시 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시간과 거주지 이동과 관련된 직업특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군인 아내는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불만을 갖는 등 군인가족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은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 불만족을 초래하는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한다.

3. 매개 요인: 군인가족 자부심

매개 요인은 스트레스 요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자원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개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행동양식이나 심리사회적 자원을 동원한다(Pearlin, 1989). 대부분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가족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

역시 스트레스 과정에서 매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가족체계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 또는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가족체계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위기 또는 적응의 단계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Lavee, McCubbin, & Patterson, 1985). 가족체계의 자원이란 가족의 응집력, 의사소통, 적응 등과 같이 가족의 내부적인 태도, 속성을 의미하며, 개인의 특성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독립적인 요인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자원과 구별된다(최연실, 옥선화, 1997; McCubbin, Joy, Cauble, Comeau, Patterson, & Needle, 1980). 이러한 가족체계의 자원은 가족 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조절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McCubbin & Patterson, 1983).

군인가족의 가족체계 자원 중 하나는 군인가족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의 특수한 직업환경은 군인가족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가족구성원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기도 한다. 군인의 직업특성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가족체계 내 자원인 군인가족 자부심은 조절 요인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객관적·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군인가족 자부심과 같은 자원이 감소하여 부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자원을 조절 요인과 매개 요인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두는 본 연구에서는 군인가족 자부심이라는 자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스트레스 결과 :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스트레스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이라는 선행연구(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89)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결과로서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의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주된 영역인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반영하는 결과요인으로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김미령, 2009;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는 개인과 가족의 내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족을 둘러싼 친족집단, 직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과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Bradbury, Finchman, & Beach, 2000).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결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Karney & Bradbury, 1995; McCubbin, & Patterson, 1983).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군인의 직업특성은 군인 아내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결혼초기 군인 아내의 결혼적응을 살펴본 조홍식과 강민철(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군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군인 아내의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이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군인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 부모역할을 감당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내적 긴장을 의미한다(Abidin, 1990; 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내 상황과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와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미라, 차기주, 주연진, 김민정, 2015). 군인 아내 역시 가족을 둘러싼 독특한 직업환경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군인 아내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실시한 유지안, 이해정과 김은심(2016)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훈련 및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군인 아내는 홀로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이 군인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군인아내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제 2 절 군인의 직업특성과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

1. 군인의 직업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군인의 직업특성은 군인가족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무시간 특성과 거주지 이동 특성은 일상적인 군인가족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 특성

군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가 빈번하고, 훈련·비상대기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부정량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3차 군인복지실태조사(국방부, 2017)에 의하면 군인의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당직근무 빈도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평일에 2.8회, 주말에 1.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등 직업으로 인한 외박빈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17). 이처럼 무정량적인 근무시간 특성은 군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가족생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군인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서 4.86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17).

국내에서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군인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박영숙, 1995; 심유화, 정미경, 2015; 양경선 외, 2011; 정현숙, 정선영, 2012b; 조홍식, 강민철, 2008)에서는 길고 불규칙한 군인의 무정량적인 근무시간 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시간 특성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근무시간 특성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다. 먼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무가 결혼만족도를 비롯한 가족생활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Hochschild, 1997; Hostetler, Desrochers, Kopko, & Moen, 2012). 또한 비표준 근무시간 특성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비표준 근무시간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제한하고(Lesnard, 2008; Wight, Raley, & Bianchi, 2008) 일상적인 경험의 공유를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Press, 2003).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시간 특성과 가족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시간가용관점(time availability perspective)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시간가용관점에 따르면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양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적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한다(한지수, 이연숙, 2005). 그 중에서도 가족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하나의

체계로 가족생활 영역에서 개인의 시간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근무시간 뿐 아니라 주말, 야간근무, 불규칙한 근무 일정 등과 같은 근무시간의 특성은 개인이 가족생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Coverman, 1985; Hook, 2006). 실제로 개인의 근무시간과 배우자의 가사노동, 자녀 돌봄 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다른 배우자의 자녀돌봄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금, 2000; Bryant & Zick, 1996).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과 일-가족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균 근무시간, 훈련 빈도 등과 같은 근무시간 특성이 일-가족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et al., 2005; Britt & Dawson, 2005). 또한 군인 이외에 다양한 직종의 근무시간 특성과 가족생활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부담이 증가하고(Dijkers, Geurts, Kinnunen, Kompier, & Taris, 2007),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Steenbergen, Kluwer, & Karney, 2011). 야간이나 주말과 같은 시간대에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비표준적인 근무시간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비표준적인 근무시간이 부부관계의 긴장을 유발하여 불안정성을 높이고(Davis, Goodman, Pirretti, & Almeida, 2008; Presser, 2000), 부부관계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Kalil, Ziol-Guest, & Epstein, 2010; White & Keith, 1990). 뿐만 아니라 비표준적인 근무시간 특성은 일과 가족 간의 부정적인 전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wald, 2003; Tammelin, Malinen, Rönkä, & Verhoef, 2017). 따라서 군인의 부정량적인 근무시간은 군인 아내로 하여금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할 뿐 아니라 군인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제한하여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무시간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른 연구들은 반

대의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주말근무, 출장, 초과근무와 같은 근무시간 특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Hughes, Galansky, & Morris.(1992)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 특성이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Coverman(1985)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무시간 특성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일관되지 않은 영향에 대해 학자들은 근무시간 특성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근무시간 특성에서 비롯되는 배우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배우자의 근무시간 특성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등 근무시간 특성과 가족생활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매커니즘과 매개요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Barnett & Gareis, 2002; Crouter et al., 2004). 즉, 군인의 무정량적인 근무시간 특성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근무시간 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인 인식과 같이 다양한 매개요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근무시간을 정량화할 수 없는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은 개인이 가족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내의 가족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군인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특성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매커니즘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특성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거주지 이동 특성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동은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 친밀한 관계와 개인의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Magdol, 2002). 특히 직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주지 이동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생활에 긴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Brett, 1982). 군인 가족은 직업으로 인해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남편이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주지 이동은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McNulty, 2003),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군인의 이동성(mobility)이 이들의 가족생활에 잠재적인 긴장을 초래한다고 밝혀왔다(Croan, Levine, & Blankinship, 1991; McCubbin, Dahl, & Hunter, 1976).

군인의 거주지 이동 특성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면서 동시에 단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하다. 거주지 이동은 군인가족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군인 아내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생활을 둘러싼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 또는 상황은 결혼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는(Bodenmann, Ledermann, & Bradbury, 2007; Karney, Story, & Bradbury, 2005), 자주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결혼 초기 군인 아내가 경험한 이사횟수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조홍식과 강민철(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기존의 친밀한 이웃관계가 사라진 새로운 거주 환경에서 새로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군인 아내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ervis, 2009; Manning & DeRouin, 1981). 또한 새로운 거주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군인 아내는 가정환경(주거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Cook & Speirs, 2005),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가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봐야 하고(Bradshaw, Sudhinaraset, Mmari, & Blum, 2010), 자녀의 새로운 보육 및 교육기관을 탐색하는 등 거주지 이동 이후 적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사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Gillespie, 2015; Magdol, 2002). 따라서 군인의 거주지 이동 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사횟수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 아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원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부에게 주어진 과제이면서도 친정, 시가와 같은 확대가족과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정 여자형제 등 가까운 혈연관계 중심의 사회적 지원은 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명원, 강민주, 2011). 그러나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군인 아내들은 자녀양육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김혜원, 박영숙, 2009).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부담이 증가하는 미취학 자녀 양육시기의 군인 아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군인 아내의 잦은 거주지 이동에 관한 해외의 몇몇 연구는 잦은 거주지 이동 경험이 군인 아내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군인 아내의 반복되는 거주지 이동 경험에 대한 James(2017)의 질적연구에서는 잦은 거주지 이동이 자녀의 학교문제, 자녀의 부적응 행동,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요인인 동시에 새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군인가족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인의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조홍식, 강민철, 2008; Jervis, 2009)와 그렇지 않

다는 연구결과(Manning & DeRouin, 1981; James, 2017)들은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단순히 거주지 이동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거주지 이동에 대한 군인 아내의 인식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의 매개효과

일과 가족의 상호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직업특성 또는 직업환경과 같은 객관적 요인만으로는 일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Barnett & Gareis, 2002; Crouter et al., 2001). 직업특성과 같은 객관적 요인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객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직업특성과 관련된 가족구성원의 경험, 인식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Crouter et al., 2001).

스트레스 과정 모델 이외의 스트레스 관련 이론들 또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적응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 McCubbin, & Patterson, 1983; Pearlin et al., 1981). 즉, 개인은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직업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군인 아내가 이러한 직업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인의 직업환경과 가족생활의 관련성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또한 군인의 직업환경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에 주목해 왔다(Adams et al., 2005; Burrell et al., 2006; Pittman, 1994). Burrell et al.(2006)은 군인의 직업특성과 이에 대한 아내의 인식이 결혼만족도와 군인가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객관적인 직업특성(거주지 이동 횟수, 훈련, 과병으로 인한 분거생활 경험횟수)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군인가족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반면 직업특성에 대한 군인 아내의 주관적 인식은 결혼만족도 및 군인가족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의 근무시간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Pittman(1994)은 근무시간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근무시간, 근무환경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 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군인의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근무시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조홍식과 강민철(2008)의 연구에서 군인 아내의 스트레스가 결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군인 아내의 스트레스란 군인의 근무환경 및 직업여건 문제, 다른 군인가족 간의 관계 문제 등 군인의 직업특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군인 아내가 지각한 군인가족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아내가 군인의 직업특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아내의 결혼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인 아내가 경험하는 근무시간, 거주지 이동의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은 직업특성에 대한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정적 인식은 직업특성과 가족생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근무시간, 거주지 이동 특성과 함께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

Olson, Larsen, & McCubbin(1982)은 가족체계 내 자원 중 하나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언급하였다. 가족 자부심이란 가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한다(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고선주, 박숙희, 2006). 따라서 군인가족 자부심이란 군인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속한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군인가

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군인가족 구성원들은 군인가족으로서 자신이 속한 가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군인가족 실태조사(양정선 외, 2011)에서 대부분의 군인 아내들은 남편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군인가족 자부심은 군인가족만의 고유한 가족체계의 내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군인가족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들은 군인가족의 자부심과 유사한 개념인 군인가족으로서의 삶의 만족도, 군인의 직업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의미부여(meaningfulness)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Bergmann et al., 2014; Larsen, Clauss-Ehlers, & Cosden 2015). 예를 들어, Bergmann et al.(2014)은 군인 남편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군인의 직업에 대한 군인 아내의 의미부여(meaningfulness)가 군인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아내가 군인 남편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군인가족 자부심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군인 아내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박미은(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 아내들이 지각한 군인가족 자부심과 가족건강성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 군인 자녀의 적응유연성 영향요인을 살펴본 박계영과 김희순(2014)의 연구에서도 군인가족 자부심과 적응유연성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가족 자부심이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지만, 군인 남편과 그 아내의 직업만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진분과 최규련(2007)의 연구에 의하면 군인 아내가 남편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이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러운 정서 상태로(Lent, & Brown, 2008), 직업만족이 곧 군인가족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군인가족 자부심 역시 군

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자원이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원이 고정적이며 독립적인 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내·외부적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Hobfoll, Johnson, Ennis, & Jackson, 2003). 자원은 가족을 둘러싼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기도 한다(Lavee, McCubbin, & Olson, 1987). 즉, 가족체계 자원인 군인가족 자부심은 군인의 부정량적인 근무시간과 잦은 거주지 이동,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감소함으로써 아내의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김진분, 최규련, 2007; 박계영, 김희순, 2014; 박미은, 2013; Bergmann et al., 2014)은 군인가족 자부심, 군인가족으로서의 삶의 만족도, 군인의 직업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의미부여(meaningfulness), 직업만족 등을 개별적인 독립변수로 다루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분석한 경향이 있으며,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직업특성과 이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 군인가족 자부심을 매개로하여 군인가내의 가족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편이 직업군인이고,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으며, 남편 및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이다. 본 연구에서 군인 남편 및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는 군인 아내로 한정된 이유는, 군인 남편의 근무시간과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경우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군인가족의 경우 자녀가 취학한 이후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분거생활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남편과 함께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자녀가 자주 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부정적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할 때의 특성이 취학자녀에 대한 양육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며 동거하는 군인가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 이전에 지도교수와 가족학 전공 대학원생 5인이 설문지의 전반적인 타당도와 로직, 온라인 설문 링크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Google Docs는 동일한 응답자가 중복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고, 응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서 누락응답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군인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한 모집 안내를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설문 URL을 발송하거나,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설문 URL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조사에 앞서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연구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

다. 또한 온라인 조사 링크 첫 페이지에 ‘연구참여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기관,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 ‘참여 동의’를 클릭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온라인 조사를 완료한 인원은 총 323명이었다. 이상과 같은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승인번호: IRB No. E1707/003-001).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한 자료는 온라인 조사를 완료한 323명의 응답이며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30대 222명(69.4%), 20대 92명(28.7%), 40대 6명(1.9%)으로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만 31.38세였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이 143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2년제 대학 졸업이 110명(34.1%)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결혼지속년수는 5년 미만인 경우가 201명(62.2%),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79명(24.5%), 10년 이상인 경우가 43명(13.3%)으로 결혼지속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지속년수는 5.25년이었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149명(46.1%), 2명인 경우가 127명(39.3%), 3명 이상인 경우가 47명(14.5%)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71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취업여부는 미취업 상태인 참여자가 260명(80.5%)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299만원이 154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300 - 399만원이 78명(24.1%), 100 - 199만원이 35명(10.8%), 400 - 499만원이 35명(10.8%), 500만원 이상이 16명(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중소도시 108명(33.4%), 읍·면·리 194명(60.1%)으로 읍·면·리 단위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거주유형은 군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20명(99.1%)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군인 남편의 소속은 육군이 290명(8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16명(5.0%), 공군 15명(4.6%), 해병대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군인가족 중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로 다

른 군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국방부, 2017). 군인 남편의 신분은 장교 128명(39.6%), 부사관 195명(60.4%)으로 부사관의 비율이 높았다. 실제 군의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살펴보면 장교 36.4%, 부사관 63.6%로(국방부, 2017), 본 연구참여자의 비율과 유사하다. 군인 남편의 계급은 중사가 121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76명(23.5%), 상사 60명(18.6%), 소령 44명(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 = 323)

변수	n(%)	변수	n(%)
연령		거주지역	
20대	92(28.7)	서울시	4(1.2)
30대	222(69.4)	광역시	17(5.3)
40대	6(1.9)	중소도시(시 지역)	108(33.4)
평균(세)	31.38	읍, 면, 리	194(60.1)
교육수준		거주유형	
고졸 이하	55(17.0)	관사: 군인아파트	187(57.9)
전문대	110(34.1)	관사: 민간아파트	65(20.1)
4년제 대학	143(44.3)	관사: 기타	68(21.1)
대학원 이상	15(4.6)	관사 외	3(.9)
결혼지속년수		군인 남편 소속	
5년 미만	201(62.2)	육군	290(89.8)
5년 이상 10년 미만	79(24.5)	해군	16(5.0)
10년 이상	43(13.3)	공군	15(4.6)
평균(년)	5.25	해병대	2(.6)
자녀수		군인 남편 신분	
1명	149(46.1)	장교	128(39.6)
2명	127(39.3)	부사관	195(60.4)
3명 이상	47(14.5)	군인 남편 계급	
평균(명)	1.71	하사	6(1.9)
취업 여부		중사	121(37.5)
미취업	260(80.5)	상사	60(18.6)
취업	63(19.5)	원사	3(.9)
가구소득		중위	5(1.5)
100-199만원	35(10.8)	소위	3(.9)
200-299만원	154(47.7)	준위	2(.6)
300-399만원	78(24.1)	대위	76(23.5)
400-499만원	35(10.8)	소령	44(13.6)
500만원 이상	16(4.9)	중령 이상	3(.9)

제 2 절 측정도구

1. 군인의 직업특성

군인의 직업특성은 크게 근무시간 특성과 거주지 이동 특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 근무시간 특성

근무시간 특성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 주말근무 횟수, 근무시간 예측 불가능성, 외박 빈도의 네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귀하의 군인 남편은 주중(월-금) 하루 평균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응답자가 몇 시간인지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주말근무 횟수는 ‘귀하의 군인 남편은 지난 한달 동안 주말(토, 일) 및 공휴일에 며칠 근무하였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응답자가 며칠인지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근무시간 예측 불가능성은 ‘귀하의 군인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예측 가능합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다’, 2 = ‘예측가능하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예측가능하다’, 5 = ‘매우 예측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외박 빈도는 ‘귀하의 군인 남편은 지난 한달 동안 훈련, 당직, 비상대기 등을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며칠이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응답자가 직접 며칠인지 입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측정변수를 활용하여 무정량적인 근무시간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만들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4가지 측정변수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치도는 $X^2(2)$ 가 4.009 ($p > .05$), TLI가 .944, CFI가 .981, RMSEA가 .056으

로 모두 좋은 합치도를 보였다. 즉, 각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주지 이동 특성

거주지 이동 특성은 결혼 이후 연평균 이사횟수와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두 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결혼 이후 연평균 이사횟수는 ‘귀하는 결혼 이후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결혼 지속년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귀하는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몇 개월인지 직접 응답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2.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호(1995)가 개발한 군인가족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군인가족의 계급화와 관련된 2문항이 중복되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1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원 척도의 문항의 표현을 더 쉽고 명료하게 다듬는 방식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군인의 직업특성인 근무시간, 거주지 이동, 진급, 군인가족의 계급화 등에 대해 아내가 얼마나 불만이라고 보고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군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경우 ‘군인 남편의 직무수행(훈련, 당직, 출장, 교육)등으로 인해 퇴근 및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다’, ‘군인 남편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군인 남편의 부재 때문에 집안일에 대해 의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다’ ‘군인 남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다’ 등이다. 거주지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는 ‘군인 남편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어 불만이다’, ‘군인 남편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문제가 걱정 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 방식으로 총 4개의 측정변수(부정적 인식 1, 부정적 인식 2, 부정적 인식 3, 부정적 인식 4)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측정 변수는 12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활용하여 4개의 항목으로 문항꾸러미를 생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83이었다.

3. 군인가족 자부심

군인가족 자부심을 측정하기 위해 박미은(2013)이 사용한 군인가족 자부심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박미은(2013)의 척도 중 ‘나는 남편의 직업에 만족한다’는 자부심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군인가족 자부심에 관한 선행연구(Bermann et al., 2014)를 토대로 ‘나는 군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의 1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인가족에 대한 자부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잠재변수인 군인가족 자부심은 4문항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설문지 중 결혼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군인 남편과의 요즘 결혼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주시시오’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매우 불행하다’ 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 7점까지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취업모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국내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척도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취업모에게만 해당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영역의 문항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중 취업모에게만 해당되는 2개 문항(‘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기가 어렵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퇴근 후에 밀려 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은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항을 삭제한 후 양육스트레스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인 8번(‘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9번(‘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인 14번(‘요즘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19번(‘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 문항은 공통성이 .4 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질문으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 있었고,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질문으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총 4개의 측정변수(양육스트레스 1, 양육스트레스 2, 양육스트레스 3, 양육스트레스 4)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측정변수는 18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활용하여 4개의 항목으로 문항꾸러미를 생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18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6.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남편 계급이며, 각각에 대하여 1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결혼지속년수는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몇 년도에 결혼하셨습니다?’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결혼년도를 직접 입력하도록 한 후, 2017년을 기준으로 결혼지속년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수는 조사 당시 연구참여자의 자녀가 몇 명인지 직접 입력한 값을 사용하였다. 남편의 계급은 ‘귀하의 남편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이상으로 구성된 응답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인 남편의 계급을 1점에서 10점까지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제 3 절 분석방법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군인의 근무시간 및 거주지 이동 특성,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군인의 직업특성과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각 잠재변수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모형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이후 근무시간과 거주지 이동,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 군인가족 자부심,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합치도를 확인하고, 경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군인 아내의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남편 계급을 통제변수로 구조모형에 투입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지속년수, 자녀수에 따라서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김지혜, 장연진, 김희주, 2013; 박병선, 배성우, 2011; Lavee, Sharlin, & Katz, 1996), 남편의 계급 역시 군인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혜원, 박영숙, 2009; 김희화, 1999)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검증과 함께 상대적 합치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적 합치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였다. TLI와 CFI는 값이 클수록 좋은 합치도인데, .95 이상이면 합치

도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합치도인데, .05 이하인 경우 모형의 합치도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다(Steiger, 1990).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부트스트래핑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주요변수의 전반적 경향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과 거주지 이동 특성,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 군인가족 자부심,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4-1>과 같다.

<표 4-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N = 323$)

변수	문항수	문항 점수 범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근무시간 특성(최근 1개월 기준)					
하루 평균 근무시간	1	-	8-24	11.66	2.14
주말근무 횟수	1	-	0-10	3.34	1.86
근무시간 예측 불가능성	1	1-5	1-5	3.39	1.16
월평균 외박 빈도 (훈련, 당직, 비상대기 등)	1	-	0-30	5.58	4.94
거주지 이동 특성					
결혼 이후 연평균 이사횟수		-	0-3	0.49	.46
현 거주지 거주기간 (단위: 개월)	1	-	0-131	24.39	22.07
직업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12	1-5	1.58-5	3.87	.64
군인가족 자부심	4	1-5	1-5	3.76	.79
결혼만족도	1	1-7	1-7	4.64	1.34
양육스트레스	18	1-5	1.17-5	3.27	.70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과 관련해서 군인 아내가 보고한 남편의 지난 한 달 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66시간(표준편차 2.14)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6시간(이윤학, 하철규, 김진웅,

서동필, 김범준, 2017)인 것과 비교했을 때, 군인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편임을 알 수 있다. 지난 한달 간 군인 남편의 주말근무횟수는 평균 3.34일(표준편차 1.86)로, 주말에도 1/3 정도는 근무를 하였다. 군인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근무시간 예측 불가능 정도는 평균 3.39점(표준편차 1.16)으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군인 남편의 월평균 외박 빈도는 평균 5.58회(표준편차 4.94)로 나타났다.

군인의 거주지 이동 특성과 관련해서 결혼 이후 연평균 이사횟수(이해이사횟수)는 평균 .49(표준편차 .46)로 결혼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약 2년에 1회 거주지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24.39개월(표준편차 22.07)로 나타났다.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은 평균 3.87점(표준편차 .64)으로 응답점수의 범위가 1점에서 5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직업특성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가족 자부심은 평균 3.76점(표준편차 .79)으로, 응답점수의 범위가 1점에서 5점인 것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평균 4.64점(표준편차 1.34)으로 중간값 4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3.27점(표준편차 .70)으로 중간값 2.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연구(박주희, 2015)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이 2.8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연구(손수민, 2012)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평균 2.66점,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평균 2.7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 기혼여성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문항꾸러미를 측정변수로 사용한 문항은 문항꾸러미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N = 323)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근무시간 특성																			
1. 근무시간	1.00																		
2. 주말근무	.336***	1.00																	
3. 근무시간 예측 불가능	.126*	.100	1.00																
4.외박빈도	.376***	.492***	.115*	1.00															
거주지 이동 특성																			
5. 이사횟수	.020	.000	.077	.008	1.00														
6. 거주기간	.058	.086	.014	-.004	-.047	1.00													
부정적 인식																			
7. 부정적 인식 1	.091	.078	.282***	.074	.066	-.016	1.00												
8. 부정적 인식 2	.141*	.081	.342***	.133*	.027	.177**	.587***	1.00											
9. 부정적 인식 3	.123*	.051	.325***	.065	.067	.100	.648***	.701***	1.00										
10. 부정적 인식 4	.139*	.165**	.278***	.082	-.006	.045	.676***	.605***	.613***	1.00									
균인가족 자부심																			
11. 자부심 1	-.059	-.007	-.073	.021	.000	.012	-.195***	-.135*	-.079	-.221***	1.00								
12. 자부심 2	-.088	.012	.054	.020	-.088	-.004	-.104	-.034	-.048	-.137*	.621***	1.00							
13. 자부심 3	-.064	-.028	.008	-.050	-.075	.006	-.151**	-.187**	-.146*	-.205***	.665***	.722***	1.00						
14. 자부심 4	-.042	-.045	-.022	-.055	-.058	-.017	-.176**	-.153**	-.117*	-.207***	.582***	.561***	.613***	1.00					
양육스트레스																			
15. 양육스트레스 1	.047	.099	.084	.102	.005	.039	.375***	.319**	.350***	.387***	-.237***	-.153**	-.188**	-.148**	1.00				
16. 양육스트레스 2	.022	.103	.070	.100	-.045	.031	.289***	.253***	.311***	.299***	-.179**	-.128*	-.158*	-.097	.750***	1.00			
17. 양육스트레스 3	.038	.095	.088	.067	-.043	.051	.343***	.274**	.346***	.367***	-.235***	-.169**	-.206***	-.159**	.778***	.791***	1.00		
18. 양육스트레스 4	.031	.092	.079	.105	-.004	.066	.347***	.279**	.340***	.383***	-.179**	-.196***	-.197**	-.098	.745***	.727***	.745***	1.00	
19. 결혼만족도	-.074	-.044	-.145**	-.115*	.024	-.016	-.349***	-.359***	-.319***	-.358***	.402***	.395***	.443***	.361***	-.432***	-.306***	-.398***	-.385***	1.00

* $p < .05$. ** $p < .01$. *** $p < .001$.

제 2 절 군인의 직업특성, 아내의 부정적 인식, 군인가족 자부심,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의 구조적 관계

1. 측정모형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측정모형의 합치도를 살펴보면 $X^2(139)$ 가 214.435 ($p < .001$), TLI가 .967, CFI가 .973, RMSEA가 .041이었으며, 개별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18개의 측정변수로 5개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모형을 설정하여 나온 분석결과에서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헤이우드(Heywood case)에 해당한다(Kolenikov & Bollen,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사횟수의 측정오차가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변수의 측정오차가 0보다 작다는 의미로, 이러한 현상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가 2개인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측정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차분산 값을 매우 작은 값인 .005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도 이사횟수의 오차항의 분산값을 .005로 고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구조모형 분석결과

측정모형 분석에 이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합치도는 $X^2(185)$ 가 372.073 ($p < .001$), TLI가 .923, CFI가 .937, RMSEA가 .056으로 모두 좋은 합치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모형(full model)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6개를 삭제한 간명한 모형(reduced model)을 비교한 결과 ΔX^2 가 8.819로 Δdf 가 6인 경우의 임계치 12.59보다 작아서 두 모형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를 토대로 간명한 모델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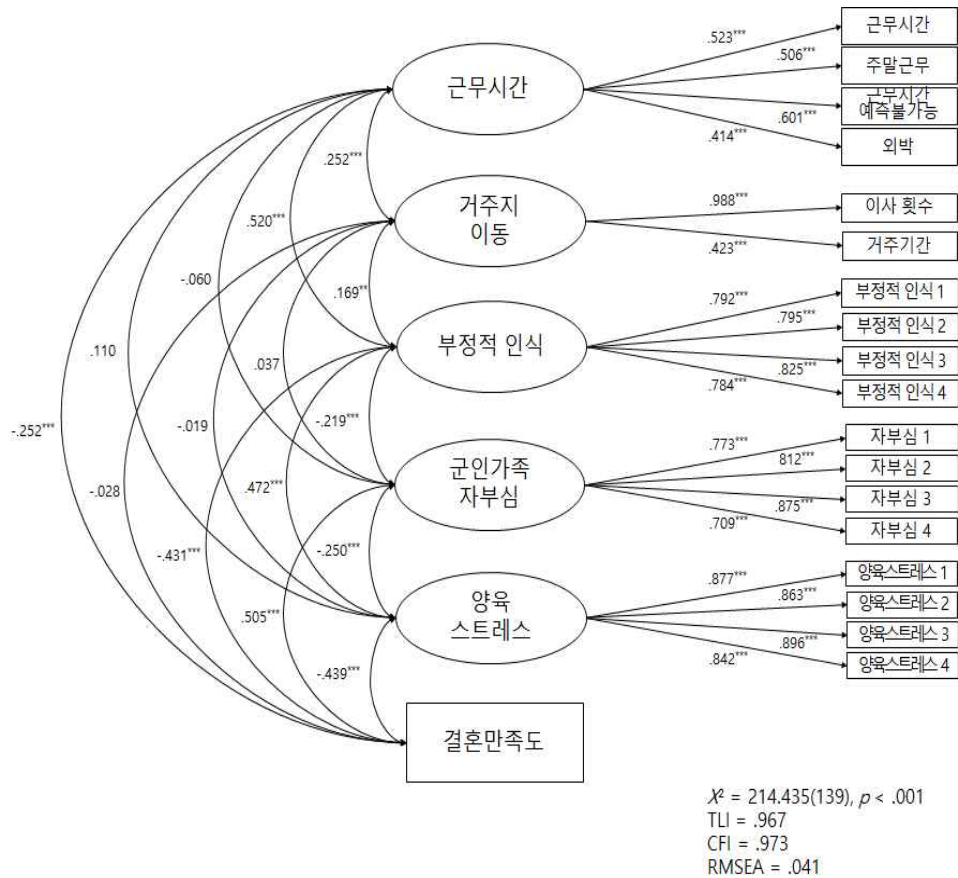
최종 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4-2>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은 아내의 부정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02, p < .001$). 이는 군인의 근무시간이 무정량적인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아내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반면 근무시간 특성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지 이동 특성은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2, p < .05$). 이는 거주지 이동이 빈번한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아내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반면 거주지 이동 특성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은 군인가족 자부심($\beta = -.220, p < .001$), 결혼만족도($\beta = -.339, p < .001$), 양육스트레스($\beta = .428, p < .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군인가족 자부심과 결혼만족도는 낮았고, 양육스트레스는 높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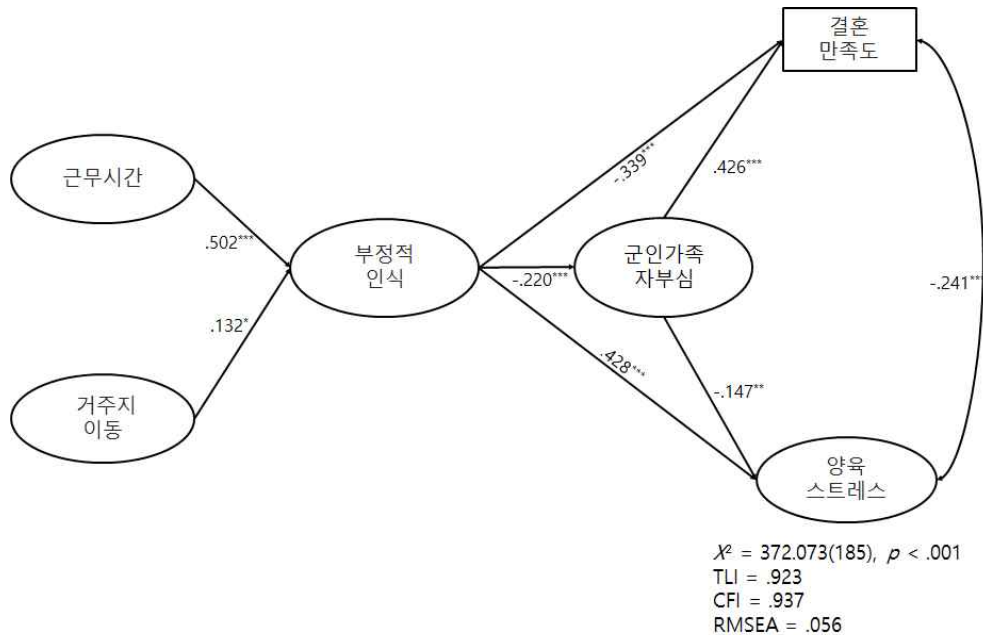
군인가족 자부심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beta = .426, p < .001$)와 양육스트레스($\beta = -.147, p < .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인가족 자부심이 높은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높았고,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

1) 군인가족 자부심이 아내의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설정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역시 최종모형의 적합도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론 없이 동치모형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김수영, 2016),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적합도와 함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해야하기 때문에(이현숙, 2010), 본 연구에서는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심리적 자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림 4-1> 측정모형 검증결과($N = 32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2> 구조모형 검증결과($N = 323$)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통제변수(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남편계급) 분석결과는 생략함. * $p < .05$. ** $p < .01$. *** $p < .001$.

3.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군인의 직업특성(근무시간 특성, 거주지 이동 특성)이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거쳐 가족생활(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최종 모형에 포함된 경로만 분석했으며, 각 경로의 간접효과는 원자료에서 무선헌당으로 10,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근무시간 특성이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특성이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연속으로 거쳐 결혼만족

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beta = -.047$, 95% CI $[-.079, -.014]$)는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특성이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하나의 매개변수만을 통해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beta = -.170$, 95% CI $[-.250, -.091]$)도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특성이 군인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특성이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연속으로 거쳐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간접효과($\beta = .016$, 95% CI $[-.001, .032]$)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근무시간 특성이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군인가족 자부심을 거치지 않은 간접효과($\beta = .215$, 95% CI $[-.123, .307]$)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이동 특성이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이라는 일련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beta = -.012$, 95% CI $[-.027, .002]$)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 이동이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하나의 매개변수만을 통해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beta = -.045$, 95% CI $[-.085, -.005]$)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이동이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연속으로 거쳐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eta = .004$, 95% CI $[-.002, .010]$)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하나의 매개변수만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간접효과($\beta = .057$, 95% CI [.008, .106]는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경로	β	SE	95% CI
근무시간 특성 → 결혼만족도			
근무시간 → 부정적 인식 → 자부심 → 결혼만족도	-.047	.017	[-.079, -.014]
근무시간 → 부정적 인식 → 결혼만족도	-.170	.041	[-.250, -.091]
근무시간 특성 → 양육스트레스			
근무시간 → 부정적 인식 → 자부심 → 양육스트레스	.016	.008	[.001, .032]
근무시간 → 부정적 인식 → 양육스트레스	.215	.047	[.123, .307]
거주지 이동 특성 → 결혼만족도			
거주지 이동 → 부정적 인식 → 자부심 → 결혼만족도	-.012	.007	[-.027, .002]
거주지 이동 → 부정적 인식 → 결혼만족도	-.045	.020	[-.085, -.005]
거주지 이동 특성 → 양육스트레스			
거주지 이동 → 부정적 인식 → 자부심 → 양육스트레스	.004	.003	[-.002, .010]
거주지 이동 → 부정적 인식 → 양육스트레스	.057	.025	[.008, .106]

제 5 장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을 기반으로 군인의 직업특성과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전국에서 남편이 직업군인이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군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기혼여성 323명의 응답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논의 이후 함의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시간 특성과 거주지 이동 특성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었다. 즉, 무정량적인 근무시간(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할 뿐 아니라 각종 훈련과 비상대기로 인해 출·퇴근 시간 예측이 어렵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음)과 잦은 거주지 이동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객관적 스트레스 요인)가 가족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Brett, 1982; Crouter et al., 2002; Hughes et al., 1992; Pittman, 1994)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둘째,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이 매개변수를 통해 아내의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연속으로 거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근무시간이 무정량적인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고,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은 경우 군인가족 자부심은 낮으며, 군인가족 자부심이 낮은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즉,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은 아내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부정적 인식은 군인가족 자부심을 감소시키는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가족 자부심은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족 자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이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한 개의

매개변수만을 거쳐서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개별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은 군인가족 자부심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도 근무시간 특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인의 근무시간 특성은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이라는 두 가지 매개변수를 연속으로 거쳐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시간이 무정량적인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아내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은 경우 군인가족 자부심은 낮으며, 군인가족 자부심이 낮은 경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인의 무정량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군인 아내가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양정선 외, 2011; 정현숙, 정선영, 2012b; 유지안 외, 2016). 특히 상대적으로 취학자녀에 비해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군인 아내는 무정량적인 근무시간과 같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 분담을 제한하는 군인의 직업특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낮은 군인가족 자부심과,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개변수가 부정적 인식 한 가지인 경우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였다. 결혼만족도가 스트레스의 결과인 경로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은 군인가족 자부심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직접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군인의 거주지 이동 특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에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빈번한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아내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결혼만족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사횟수가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조홍식, 강민철, 2008)와 유사한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군인 아내의 다양한 적응을 요구하는 거주지 이동은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반복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해야만 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군인의 거주지 이동 특성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에서도 아내의 부정적 인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거주지 이동이 빈번한 경우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해 아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아내의 양육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논의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혜원, 박영숙, 2009; 유지안 외, 2016). 특히 군인 남편의 부대이동을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아내의 경우, 이사는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지 이동을 반복하면서 남편의 직업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군인의 근무시간 및 거주지 이동 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무정량적 근무시간과 잦은 거주지 이동과 같은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을 매개로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Pearlin et al.(1981)의 이론적 모델과 일치한다. Pearlin et al.(1981)은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직접적으로 적응 결과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 특성과 거주지 이동 특성(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군

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을 통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군인가족 자부심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역시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일치한다. Pearlin et al.(1981)은 스트레스 요인의 확산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역할을 살펴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심리사회적 자원에 해당하는 군인가족 자부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이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을 통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체계 내 자원인 군인가족 자부심이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발견하여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량적인 근무시간이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통해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 불만족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인 남편의 업무수행과, 군복무 의지와 같은 군 생활 지속성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Martin, 1984). 이처럼 군인이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가족의 안정과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군인의 부정량적인 근무시간이 군인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도, 재택근무와 같은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그대로 군 조직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훈련, 비상대기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일-가족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군의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계급사회인 군의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대의 지휘관들(Bourg & Segal, 1999)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현숙, 정선영(2012a)의 연구에서도 군인과 그 가족의 직업만족도를 높이는데 지휘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휘관들이 가족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군인의 무정량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군인 아내의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히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군인 아내의 지지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과가 실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설치 이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군인가족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 인식은 객관적 직업특성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군인의 특수한 직업특성으로 인해 아내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인식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교육지원(장학금, 군자녀기숙사, 대학입시 특별전형 등), 문화·여가활동지원(휴양시설 운영) 등 도구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심리·정서적 지원은 제한적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2008년부터 ‘군인가족 행복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군인가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군인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의 경우 독특할 수밖에 없는 군인의 직업특성으로 인한 군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부부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군인가족이 고유하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Bakhurst, Loew, McGuire, Halford, & Markman, 2016).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경우 군과 가족의 상호성을 토대로 군인가족을 긴밀한 파트너로 인식하여, 군인의 직업특성을 가족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해왔다(양경선 외, 2011; Daley, 2003).²⁾ 국내에서도 군인가족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군인의 직업특성에 대한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편의표집을 통해 수집된 횡단자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 남편의 소속 및 신분의 비율은 모집단과 비슷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군인 아내들이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모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체 군인 아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서의 횡단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인의 직업특성과 아내의 가족생활의 관계에서 군인가족 자부심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인 군인의 직업특성과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인 직업특성에 대한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군인가족 자부심에 의해 매개됨으로 밝혔다. 그러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따르면 군인의 직업특성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군인가

2) 군인가족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예로는 군인의 독특한 직업환경으로부터 군인의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Building Strong and Ready Families(BSRF) 프로그램, 군인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이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Family Readiness Group(FRGS) 등이 있다.

족 자부심이 조절할 수도 있으므로,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군인가족의 내적 자원인 군인가족 자부심만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군인의 직업특성과 군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군인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등이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미래의 연구에서는 군인가족 자부심 이외에 다양한 매개변수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군인의 직업특성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데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군인 아내의 스트레스 수준이 남편의 신분과 거주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조홍식, 강민철, 2008)를 고려했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군인 남편의 신분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군인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가족체계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군인의 직업특성이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가족체계의 자원으로서 군인가족 자부심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군인 아내의 부정적 인식과 군인가족 자부심을 통해 무정량적인 근무시간과 잦은 거주지 이동이 군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인 아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군인가족 지원 방안의 초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방부(2017). **2017 군인복지실태조사**. 서울. 국방부.
- 국방부(2017). 145 각 군별·신분별 병력 규모.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Sub/Finance_stat/fn03-48.jsp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명원, 강민주(201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8), 25-35.
-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6, 35-61.
- 김수영(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지혜, 장연진, 김희주(2013).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 유형과 영향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255-278.
- 김진분, 최규련(2007). 군인부부의 의사소통과 직업만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677-1692.
- 김혜원, 박영숙(2009). 군인가족의 학령전기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군진간호연구**, 27(2), 27-40.
- 김희화(1999). **한국 군인가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군인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계영, 김희순(2014). 초기 청소년 군인자녀의 적응유연성과 영향요인. **군진간호연구**, 32(1), 66-79.
- 박미은(2013). 직업군인 아내들이 인식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6(2), 39-63.
- 박병선, 배성우(2011). 부부관계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성별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4, 41-76.
- 박영숙(1995).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

- 지, 1(1), 54-63.
- 박주희(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41-62.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
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심유화, 정미경(2015). 직업군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군사회복지학**, 8(2), 61-95.
- 양정선, 최윤선, 이정화(2011). 경기도 군인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유지안, 이혜정, 김은심(2016). 군인아내의 양육경험 이야기. **유아교육·보
육복지연구**, 20(4), 239-264.
- 이영균, 최복희(2010). 직업군인 가족의 삶의 질 실태분석. **한국군사회복
지학**, 3(2), 25-45.
- 이윤학, 하철규, 김진웅, 서동필, 김범준(2017). 2016년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 서울: 100세시대연구소.
-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고선주, 박숙희(2006). 청소년의 주체형성을 위한
환경요소들에 관한 종합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27-49.
- 이현숙(2010). 구조방정식 원리와 적용. 학지사 : 서울.
- 정미라, 차기주, 주연진, 김민정(2015). 취업모의 직장 내 분위기의 융통
성,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22(4), 433-454.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
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현숙, 정선영(2012). 육군의 배우자가 인지한 군인배우자의 군인직업특
성, 가족환경 특성과 복지요구도. **한국군사회복지학**, 5(1),
111-144.
- 정현숙, 정선영(2012). 군인가족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군

- 인배우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군사회복지학**, 5(2), 59-82.
- 정현호(1995). **군인가족의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적 긴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재영(2005. 6. 5). “직업군인 복무중 평균 16회 이사”.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5060807318>
- 조홍식(2010). 육군 직업군인복지의 발전 방안. **한국사회과학**, 32, 155-181.
- 조홍식, 강민철(2008). 군인부인의 결혼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 군인부인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와 대처-. **한국군사회복지학**, 1(1), 165-198.
- 조희금(2000).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과 직업만족도. **대전대 사회과학연구소**, 7(3), 373-390.
- 최연실, 옥선화(1997). 가족 스트레스 모델의 경험적 검증: 청소년 자녀가 있는 중년기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5(1), 55-78.
- 한지수, 이연숙(2005).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2), 41-57.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dams, G. A., Durand, D. B., Burrell, L., Teitelbaum, J. M., Pehrson, K. L., & Hawkins, J. P. (200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perations tempo on outcomes for soldiers and spouses. *Military Psychology*, 17(3), 229-246.
- Bakhurst, M. G., Loew, B., McGuire, A. C. L., Halford, W. K., & Markman, H. (2016). Relationship education for military couples: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 *Family Process*, 56(2), 302-316.
- Barnett, R. C., & Gareis, K. C. (2002). Full-time and reduced-hours

- work schedule and marital quality. *Work and Occupations*, 29(3), 364-379.
- Bergmann, J. S., Renshaw, K. D., Allen, E. S., Markman, H. J., & Stanley, S. M. (2014). Meaningfulness of servi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army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5), 701-706;
- Bodenmann, G., Ledermann, T., & Bradbury, T. N. (2007). Stress, sex,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4, 407-425.
- Bourg, C., & Segal, M. W. (1999). The impact of family supportive policies and practi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the army. *Armed Forces & Society*, 25(4), 633-652.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radshaw, C. P., Sudhinaraset, M., Mmari, K., & Blum, R. W. (2010). School transitions among military adolescents: A qualitative study of stress and coping. *School Psychology Review*, 39(1), 84-105.
- Brett, J. M. (1982). Job transfer and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4), 450-463.
- Britt, T. W., & Dawson, C. R. (2005). Predicting work-family conflict from workload, job attitudes, group attributes, and health: A longitudinal study. *Military Psychology*, 17(3), 203-227.
- Bryant, W. K., & Zick, C. D. (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1), 227-237.
- Burrell, L. M., Adams, G. A., Duran, D. B., & Castro, C. A. (2006). The impact of military lifestyle demands on well-being, army,

- and family outcomes. *Armed Forces & Society*, 33(1), 43-58.
- Cook, T. J., & Speirs, K. (2005). Migration and employment among the civilian spouses of military personnel. *Social Science Quarterly*, 86(2), 342-355.
-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Cox, M. J., &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243-267.
- Croan, G. M., & LeVine, C. T., & Blankinship, D. A. (1991). *Family adjustment to relocation* (technical report). Alexandria, VA: U.S. Army Research Institution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 Crouter, A. C., Matthew, F. B., Melissa, R. H., & Susan, M. M. (2001). Implication of overwork and overload for the quality of men's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404-416.
- Daley, J. G. (2003). Military social work: A multi-country comparison. *International Social Work*, 46(6), 437-448.
- Davis, K. D., Goodman, W. B., Pirretti, A. E., & Almeida, D. M. (2009). Nonstandard work schedules, perceived family well-being, and daily stress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991-1003.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2), 119-136.
- Dikkers, J. S. E., Geurts, S. A. E., Kinnunen, U., Kompier, M. A. J., & Taris, T. W. (2007). Crossover between work and home in dyadic partner relationship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8, 529-538.

- Drummet, A. R., Coleman, M., & Cable, S. (2003). Military families under stress: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52, 297-287.
- Faulk, K. E., Gloria, C. T., Cance, J. D., & Steinhardt, M. A. (2012). Depressive symptoms among US military spouses during deployment. *Armed Forces & Society*, 38(3), 373-390.
-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Social Science & Medicine*, 26(3), 309-317.
- Folkman, S., & Lazarus, R. S., Gruen, J.,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71-579.
- Gillespie, B. J. (2015). Residential mobility and change and continuity in parenting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5, 279-294.
- Green, S., Nurius, P. S., & Lester, P. (2013). Spouse psychological well-being: A keystone to military family health.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3, 753-768.
- Grosswald, B. (2003). Shift work and negative work-to-family spillover. *The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0(4), 31-56.
- Hobfoll, S. E., Johnson, R. J., Ennis, N., & Jackson, A. P. (2003). Resource loss, resource gain, and emotional outcomes among inner city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632-643.
- Hook, J. K.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 639-660.
- Hochschild, A. (1997). The time bind. *Journal of Labor and Society*,

8, 21-29.

- Hostetler, A. J., Desrochers, S., Kopko, K., & Moen, P. (2012). Marital and family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work-family demands and community resources: Individual- and couple-level analyses. *Journal of Family Issues*, 33(3), 316-34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Hughes, D., Galinsky, E., & Morris, A. (1992).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marital quality: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1-42.
- James, S. D. (2017). *Military spouses: Experience with relocating multiple ti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St, Minneapolis, USA.
- Jervis, S. (2009). *Military wives and relocation: A psycho-social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Bristol, England).
- Joseph, A. L., & Afifi, T. D. (2010). Military wives' stressful disclosures to their deployed husbands: The role of protective buffering.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8, 412-434.
- Kalil, A., Ziol-Guest, K., & Levin-Epstein, J. (2010). Non-standard work and marital instability: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1289-1300.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rney, B. R., & Crown, J. S. (2007). *Families under stress: An assessment of data, theory, and research on marriage and divorce in the militar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Karney, B. R., Story, L., & Bradbury, T. N. (2005). Marriages in context: Interactions between chronic and acute stress among newlyweds. In T. A. Revenson, K. Kayser, & G. Bodenmann(Eds.), *Emerging perspectives on couples' coping with stress*(pp. 13-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arney, B. R., Story, L. B., & Bradbury, T. N. (2005). Marriages in context: Interactions
- Karney, B. R., & Trail, T. E. (2017). Associations between prior deployment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army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9, 147-160.
- Kelly, M. L. (1994). The effects of military-induced separation on family factors and child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 103-111.
- Kolenikov, S., & Bollen, K. (2012). Testing negative error variances: Is a heywood case a symptom of misspecifica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1, 124-167.
- Larsen, J. L., Clauss-Ehlers, C. S., & Cosden, M. A. (2015). An exploration of army wives' responses to spousal deployment: Stressor and protective factors.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 212-228.
- Lavee, Y.,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5).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An empirical test by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11-825.
- Lavee, Y., McCubbin, H. I., & Olson, D. H. (1987). The effect of

- stressful life events and transitions on family functioning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57-873.
- Lavee, Y., Sharlin, S., & Katz, R. (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14-135.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6-21.
- Lesnard, L. (2008). Off-scheduling within dual-earner couples: An unequal and negative externality for family t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 447-490.
- Lester, P., Aralis, H., Sinclair, M., Kiff, C., Lee, K. H., Mustillo, S., & MacDermid Wadsworth, S. (2016). The impact of deployment on parental family and child adjustment in military familie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7, 938-949.
- Magdol, L. (2002). Is moving gendered? The effects of residential mobilit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en and women. *Sex Roles*, 47, 553-560.
- Manning, F. J., & DeRouin, E. M. (1981). Employed wives of US army members in Germany fare better than those unemployed. *Military Medicine*, 146, 726-728.
- Martin, J. (1984). Life satisfaction for military wives. *Military medicine*, 149, 512-514.
- McCubbin, H. I., Dahl, B. B., & Hunter, E. J. (1976). *Families in the military system*. New York: Sage.
- McCubbin, H. I., Joy, C. B., Cauble, A. E., Comeau, J. K., Patterson, J. M., & Needle, R. H. (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Marriage & Family Review, 6*, 7-37.
- McNulty, A. F. (2003). Does deployment impact the health care use of military families stationed in Okinawa, Japan?. *Military Medicine, 168*, 465-470.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ie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6.
- Olson, D. H., Larsen, A. S., & McCubbin, H. I. (1982). Family Strengths. In D. H. Olson, H. L., McCubbin, H., Barnes, A. S.,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terventions: Intervention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Mi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 (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Newsbury Park, CA: Sage.
- Padden, D. L., Connors, R. A., & Agazio, J. G. (2010). Stress, coping, and well-being in military spouses during deployment separatio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3*, 247-267.
- Palmer, C. (2008). A theory of risk and resilience factors in military families. *Military Psychology, 20*, 205-217.
- Paley, B., Lester, P., & Mogil, C. (2013). Family systems and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impact of deployment on military famili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6*, 245-265.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256.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 Pittman, J. F. (1994). Work/family fit as a mediator of work factors on marital tension: Evidence from the interface of greedy institutions. *Human Relations*, 47(2), 183–209.
- Press, H. B. (200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3–110.
- Press, H. B. (2003). *Working in a 24/7 economy: Challenges for American famil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Riggs, S. A., & Riggs, D. S. (2011). Risk and resilience in military families experiencing deployment: The role of the family attachment network.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 675–687.
- Schieman, S., Whitestone, Y. K., & Gundy, K. V. (2006). The nature of work and the stress of higher statu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7, 245–257.
- Schuman, W., Bell, D. B., & Tran, G. (1994). *Family adaption to the demands of army life: A review of findings*. Alexandria, VA: 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 Segal, M. W. (1986). The military and the family as greedy institutions. *Armed Forces & Society*, 13, 9–38.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Tammelin, M., Malinen, K., Rönkä, A., & Verhoef, M. (2017). Work schedules and work-family conflict among dual earners in

- Finland,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Family Issues*, 38, 3-24.
- van Steenberg, E. F., Kluwer, E. S., & Karney, B. R. (2011). Workload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in Newlyweds: Job satisfaction, gender, and parental status as Moderat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 345-355.
- Wells, L., & MacDonald, G. (1981). Interpersonal networks and post-relocation adjustment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Gerontologist*, 21, 177-183.
- White, J. M., & Keith, B. (1990). The effect of shift work on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53-462.
- Wight, V., Raley, S., & Bianchi, S. (2008). Time for children, one's spouse and oneself among parents who work nonstandard hours. *Social Forces*, 87, 243-271.

<부록 1> 설문지3)

SQ. 응답자 선정 문항

SQ1. 귀하의 남편은 직업군인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답을 중단해 주십시오.

SQ2. 귀하는 미취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답을 중단해 주십시오.

SQ3. 귀하는 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답을 중단해 주십시오.

A. 미취학 자녀 양육

A1.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 ① 1명(A2으로 이동) ② 2명 이상(A3으로 이동)

A2_1.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_____명

A3. 다음은 부모역할과 미취학 자녀양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느끼시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록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만 수록하였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2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3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4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5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6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7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8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9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10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1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3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4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1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16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17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19	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					
20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21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D. 지역사회

D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시 지역) ④ 읍, 면, 리

E. 군인가족 생활

E1.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몇 년도에 결혼하셨습니다?

_____년

E2. 귀하는 결혼 이후 이사를 몇 번 하셨습니다?

_____회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0회라고 입력해주시요.

E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거주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관사-군인가파트 ② 관사-민간아파트
③ 관사-기타 ④ 관사 외

E4. 귀하는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_____개월(예시: 0년 6개월)

E5. 다음은 군인가족 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묻는 문항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군인 남편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문제가 걱정된다.					
2	군인 남편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어 불만이다.					
3	군인 남편의 직무수행(훈련, 당직, 출장, 교육 등)으로 인해 퇴근 및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다.					
4	군인 남편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군인 남편의 부재 때문에 집안일에 대해 의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다.					
5	군인 남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다.					
6	군인 남편의 월급수준이 사회의 일반 직장에 비해 저조한 것 같아 불만이다.					
7	군인가족에 대한 주택보급 수준과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 같아 불만이다.					
8	군인 남편의 전역 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걱정된다.					
9	군인 남편이 제때 진급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10	군인 남편의 임무수행 시 안전이 걱정된다.					
11	군인 남편의 계급에 따라 가족의 계급이 정해지는 것 같아 불만이다.					
12	군인가족의 경우 때때로 관사에 공동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것 같아 불만이다.					

F. 군인 남편

F1. 귀하의 남편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 ① 하사 ② 중사 ③ 상사 ④ 원사 ⑤ 소위 ⑥ 준위 ⑦ 대위
⑧ 소령 ⑨ 중령 이상

F2. 귀하의 남편의 소속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육군 ② 해군 ③ 공군 ④ 해병대

F3. 귀하의 군인 남편은 주중(월~금) 하루 평균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_____시간 근무

F4. 귀하의 군인 남편은 지난 한 달 동안 주말(토, 일) 및 공휴일에
며칠 근무하였습니까?
_____일

F5. 귀하의 군인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예측 가능합니까?

- ①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다 ② 예측가능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예측가능하다 ⑤ 매우 예측가능하다

F6. 귀하의 군인 남편은 지난 한달 동안 훈련, 당직, 비상대기 등을 이
유로 집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며칠이었습니까?
_____일

F7. 귀하의 느낌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2	나는 남편의 직업에 만족한다.					
3	나는 군인 아내로서 군에 대한 남 다른 애정과 충성심을 갖고 있다.					
4	나는 군인의 아내인 것을 다른 사 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5	나는 군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G. 군인 아내의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G1. 전체적으로 보아 군인 남편과의 요즘 결혼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불행하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H. 사회인구학적 특성

H1.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만_____세

H2.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H3. 귀하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몇 시간입니까?(이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0이라고 입력해주시요.)

_____ 시간

H4.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상자의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전업주부
- ② 관리자
-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④ 사무종사자
- ⑤ 서비스 종사자
- ⑥ 판매 종사자
-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⑨ 군인
- ⑩ 기타

H5. 귀하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⑩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 이상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Militar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Life Among Military Wives with Preschool Children

Park, Jiso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stress process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ilitar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e., long and unspecified work hour, frequent moving) and family life (i.e.,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were mediated by negative perceptions of militar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family pride among military wive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literature has discussed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ccupation create difficulties for military families. However, little empirical evidence exists about the underlying process of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military wives' family life in Korea, particularly for wives with preschool

childre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23 women who were married to professional military husbands, had at least one preschool child, and lived with the husband and chil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direct links between the militar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long and unspecified work hours, frequent moving) and family life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were not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years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and the husband's military rank.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hours and the wives' family life was mediated by the wife's negative perceptions towar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life and then by military family pride (work hours → negative perceptions → pride → marital satisfaction/parenting stress). This dual mediation indicated that the longer and more unspecified the husband's work hours were, the more negative the wife's perceptions were towar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ccupation, which, in turn, led to lower military family pride. The lower military family pride was associated with lower marital satisfaction and higher parenting stress.

The single mediation effects of negative perceptions was significant. Wives' negative perceptions towar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ccup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hours and wives' family life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by itself.

Finally, the association between frequent moving and the wife's family life was mediated by the wife's negative perceptions towar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ccupation (frequent moving → negative perceptions → marital satisfaction/parenting stress). This result indicates that military spouses who experienced more frequent moves were more likely to have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ccupation, which, in turn, led to lower marital satisfaction and higher parenting stress.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underlying mechanism between militar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wives' family life by applying the stress process model. Secon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the mediating roles of negative perceptions and military family pri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wives' family life. Finally, this study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military wives' family life and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for intervent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military family life.

Keywords: Frequent moving, marital satisfaction, military family pride, military wives, perceptions towar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stress process model, work hours, parenting stress

Student Number: 2016-21691